

■민주 전대 오늘 컷오프...누가 3등 할까?

# 김한길·신계륜 본선 진출 무난 속 '票' 분산 강기정·이용섭 전망 엇갈려

### 최고위원 도전 황주홍 의원 "가능성 높다" 관측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12일 오후 실시되는 예비경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정(북구 갑), 이용섭(광산 을) 후보 가운데 누가 본선에 진출할 것인지가 관심이 쏠린다. 초선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황주홍(강진·영암·장흥) 후보의 선전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당 대표 후보자는 김한길(기호 1번), 이용섭(기호 2번), 신계륜(기호 3번), 강기정(기호 4번) 후보 등 4명이다.

최고위원에는 모두 11명이 도전했으며 황주홍 후보는 기호 4번이다. 중앙위원(363명) 대상으로 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최고위원 후보자 11명 가운데 7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중앙위원들은 당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1인 1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1인3표를 행사한다.

일단 당 대표 예비 경선 판세를 보면 비주류를 대표해 나서는 김한길 후보의 경우, 대세론을 형성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선 진출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또한, 신계륜 후보도 민권론을 중심으로 주류, 중도 진영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본선 진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본선 진출 여부다. 당내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강기정 후보가 정세균 의원 등 당내 주류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1인 1표를 행사하는 예비경선을 고려하면 본선 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용섭 후보의 경우 주류 세력은 물론 중도 진영 등에서 폭넓은 호감도가 있어 오히려 기대 이상의 표를 모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50~60표 이상을 모아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강기정, 이용섭 후보 모두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호남 표심의 분산 등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두 후보 가운데 본선 진출에 실패한 주자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

가피할 전망이다.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황주홍 후보의 경우 조직력은 약하지만 본선 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 경선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아쉬우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래도 두 후보가 과감한 도전을 한 만큼 적어도 예비 경선에서는 지역 주자를 밀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 정부 들어 첫 선거인 4·24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통합진보당 정태홍·진보정의당 김지선·무소속 안철수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길거리 유세를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



## 여야, 재보선 격돌

새 정부 들어 첫 선거인 4·24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1일 시작됐다.

◇興, 노원병 화력집중=새누리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노원병 허준영 후보의 '지역 일꾼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철새'로 규정해 공세를 펼쳤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지역 발전을

## 새누리 "지역일꾼 뽑아달라" 노원병 총공세 민주당 "정권경종론" 울리며 부산영도 주력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후보를 공천했다"며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듯 "지역에 한 번도 발붙인 적이 없는 인사가 갑자기 출현, 국회의원을 더 큰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면 유권자는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영 후보는 이날 환경미화원과 함께하는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부산 영도의 김무

성 후보는 봉래동 인재병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하고 유세를 본격화했다.

◇野, '정권경종론'=민주통합당은 노원병을 제외한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등 2곳에만 후보를 냈으나 모두 여당 후보에 열세인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인사 문제점 등 실정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여권에 대해 경종론을 울리는 캠페인을 벌여나갔다는

뜻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영도에서 열린 김보아 후보의 출정식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13일부터 김 후보의 선거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청양에서는 황인석 후보의 출정식이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동철·양승조·박완주 의원과 지지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노원병에서는 무소속 안철수후보와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안 후보는 이날 낮 노원구 삼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4월24일은 노원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날이다. 새 정치의 중심에 함께 서는 날"이라며 "저의 승리는 제 것이 아니라 새 정치를 믿는 주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보선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안보 위기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대선평가' 갈등 확산

### 평가위, 친노·주류 실명 거론 책임론 제기

### 범주류, 백서 발간 중앙위 소집 등 '감정싸움'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대선평가보고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평가위가 지난 9일 친노(친노무현)·주류 등 실명까지 거명하며 책임론을 제기하자 범주류 측이 자체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평가위와 비주류는 부처 절한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감정싸움으로도 치닫는 형국이다.

대선캠프 기획본부장이었던 이목희 의원은 11일 "보고서가 마치 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홍영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보고서가 수준 이하이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분열적이며 백서가 필요하다"며 "이미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는 범주류의 반발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가위 간사인 김재홍 경기도 교수 "마지막에 모두 박수치며 끝났고 소수의견까지 달았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공식채택하든지, 폐기처분할지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9일 보고서를 비대위에 보고했을 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다 받아들여졌다. 일자 일확도 고치지 않겠다'고 했다"며 범주류의 수정론 주장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다.

비주류 내에서는 이 보고서를 전대에서 공식 의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친노 책임론이 포함된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주류인 문병호 비대위원은 "원래 계획은 당 정치혁신위원회와 대선평가위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전대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전대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협의체 릴레이 가동

### 오늘 '6인협의체' 이어 내주 '여야정협의체' 논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도부급 '6인 협의체'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연이어 가동한다.

양당은 우선 1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하는 6인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연다. 6인 협의체는 공통 대선공약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당은 정책위의장 간 사전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법안을 중심으로 최우선 처리안건 80여개를 추렸으며, 6인 협의체에서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 국회의 현안인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추가 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개별 상임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최종적으로 양당 지도부 차원의 정치력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때문에 '6인 협의체'는 큰 틀의 윤곽을 잡아주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무적인 세부 협의는 이르면 내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구성원 면면에서도 여야정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 관계부처 장관들이 구성되기에 삼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11일 "6인 협의체는 현안들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방안 등은 여야 협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당은 국회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직항상이나 성직항상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가위원회의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일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공-4738호

# 임대

- ▶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 ▶ 6층고급주택
- ▶ 병/의원, 약국, 커피숍, 편의점
- ▶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 매매

- ▶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 분할매매가능

문의 011-611-9525 / 010-3605-5000